

실전처럼...시간 맞춰 모의고사 풀 때

고3 방학 어떻게 보내야하나

학종-수능 준비 균형 맞춰야
국어, 약점 위주 학습 효율적
수학, 풀이 과정 기록·검토
영어, EBS연계 지문 익히기

오는 8월 7일은 2019학년도 수능능력 시험 D-100일이다.

고3 입장에서 보면 여름방학을 얼마나 알차게 보내느냐에 따라 대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교육청 진로진학팀의 도움을 받아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는게 좋은지 알아봤다.

◇마음가짐이 중요= 대학 합격이라는 최종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입시는 끝난 게 아니다. 수시 원서접수 기간(9월 10일~14일)이 다가오면서 특히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보완하는 등 서류 준비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수시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다른 전형 준비에는 소홀한 경향을 보이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대학 입학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능 준비라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아직 늦지 않았다는 여유를 동시에 갖고서 여름방학을 보내야 한다.

◇1:1:1:1 학습 법칙= 여름방학이 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바심이 들기 마련이다. 상당수 학생들은 자신이 취약한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의 결과와 항상 수행생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족한 과목의 성적 상승이 아닌, 평소애 자신 있던 과목 점수의 하락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수능 과목의 공부하는 시간 배분을 가급적 균등하게 하되 성적이 부족한 과목의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줄여 더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 일반적으로는 모든 과목을 수능이 다가올수록 꾸준히 학습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수사에서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특정 과목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EBS 영향력= EBS 연계교재라는 명칭과 수는 70% 연계율의 수능에서 EBS 교재가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특히 지문이 연계 출제되는 국어와 영어의 경우에는 지문에 익숙한 정도에 비해 실제 시험에서 문제 풀이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로 고난도로 출제되는 비연계 지문 문항 풀이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학과 탐구과목에서도 중심 개념 및 기본 문항 등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국어= EBS 연계교재와 국어교과서 지문을 중심으로 어휘, 어법, 문학, 비문학 분야로 나누어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평소 약점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기출문제에서 중점적으로 출제되었던 주요 개념들을 정리해야 한다.

비문학의 경우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지문 내용을 요약해서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문의 핵심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지문 내용을 대충 보고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해 자신만의 주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간에 맞추어 꾸준히 실전 모의고사 문항을 풀며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학= EBS 수능특강 교재를 통해 기본적인 개념과 유형을 반복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연계되어 출제되는 기본 문항들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며, 고난도 문항이 주로 출제되는 단원들을 파악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길러 문항으로 불리는 21, 29, 39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빠르게 검토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상위권 학생의 경우 고난도 문항을 풀이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길러 문항 해결이 무리라고 판단되면 기본 문항들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영어= EBS 연계교재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과목이다.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EBS와 연계된 지문의 꾸준한 반복학습이 문제 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관건이 된다. 절대 평가 전환 이후 쉬운 영역이라는 오해가 생겼지만 지난 6월 모의고사 결과에서처럼 상대평가 때보다 더 변별력을 갖출 수도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신유형으로 출제되었던 문항들이 9월 모의고사에서 다시 출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까지 연계교재에 수록된 어휘를 익히고 국어와 마찬가지로 실제 시험 시간과 동일한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모' 역할 중요= 공부는 학생들이 하는 것이지만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덩달아 불안한 마음이 커지는 것을 감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그런 불안감은 커져갔지만 입시 준비로 예민해진 학생들은 부모님의 흔들리는 마음을 쉽게 알아채곤 한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고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는 게 필요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대, 인공지능 활용 소재개발 국책 연구

사업비 177억원 확보

전남대학교 김재국 교수 연구팀이 17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초대형 국책연구 과제 수행그룹으로 선정됐다.

30일 전남대에 따르면 2018년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공학분야(ERC) 연구수행그룹으로 선정됐다. 연구과제는 '인공지능 활용 이온성 기반 소재개발 플랫폼 연구센터'를 구성하고, '인공신경망 센서 흐름이 적용된 분석 알고리즘을 소재연구에 적용한 고기능성 이온성 기반 전기화학 소재 플랫폼 개발'이다.

공학분야에 전남대가 선정된 것은 이 사업이 시작된 1991년 이후 28년만에 처음이다. 연구팀은 공학(ERC) 5개 세부분야 가운데 소재분야를 맡아 사실상 '국가대표급 연구그룹'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는 2025년까지 7년동안 177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전남대는 설명했다. 연구센터에는 총괄책임자인 김 교수를



김재국 교수

비롯해 이종숙, 송선주, 박찬진, 임원빈, 심옥 교수(이상 신소재공학부)와 허수미 교수(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등 연구역량을 축적한 교수들이 핵심연구원으로 참여한다.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은 우수 연구집단을 발굴, 육성해 세계적인 수준의 핵심 연구분야를 육성함과 동시에, 국가 기초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송진규 전남대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은 "초대형 신규과제가 선정된 것은 전남대의 연구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연구자 친화형 캠퍼스 구축"이라는 전남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영호남 중학생들 화합의 하모니

조대여중-경북 하양여중 참여 '영호남음악회' 조선대서 열려

조선대학교(총장 강동완) 후원으로 광주 거점연합오케스트라와 경북 거점연합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제4회 영호남교류음악회(총감독·기획연출 김정희)가 최근 조선대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이번 행사에서 광주교육청 주최로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교장 김종익)를 주축으로 구성된 광주연합오케스트라(단장 김정수·지도교사 이수정) 56명과 경북 하양여자중학교(교장 이창훈) 중심의 경산연합학생오케스트라(지도교사 정동진) 64명이 공연했다.

공연에는 영호남거점오케스트라 합주공연 외에도 ▲보컬리스트 박현선과 함께 한 '사계동행 뮤지컬' ▲광주지역 음악교사로 구성된 크로스오버 앙상블 '카푸치노'의 공연 ▲소프라노 이승희, 테너 장흥식씨의

솔로무대, 시낭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올해로 4회째 열린 영·호남교류음악회는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가 교육부 예술거점학교에 선정돼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영·호남교류음악회의 산파 역할을 한 김정희 총감독(전 조대여중교 음악교사)은 "이번 공연에는 악기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시켰다"며 "음악적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표현력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예술적 감수성 및 잠재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강동완 총장은 "오늘 이 공연은 조선대학교가 지원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며 "조선대학교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018. 고흥청소년 단편영화 캠프
청소년들의 상상과 꿈을 영상으로
일시 : 2018. 7. 23.(월) ~ 7. 25.(수)
장소 : 동신대학교 캠퍼스 일원
주관 : 전남남도교육청
후원 :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방송

미디어로 꿈 키우는 청소년들 동신대학교(총장 최일)는 최근 대학 캠퍼스에서 '고흥청소년 단편영화캠프'와 '전남교육 영상기자단 캠프'를 진행했다. '고흥청소년 단편영화캠프'는 문화·예술적 감수성과 영상·영화 제작 기량을 갖춘 청소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동신대 제공>

학업 병행하는 고졸 근무자에 장학금 지급

한국장학재단 8월6~17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II유형)'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후학습 장학금은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2학기에 도입된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회사에 다닌 재직자 가운데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대학생(1~4학년)이다.

일반대, 전문대, 원격재 학생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과 대학구조개혁평가 재정지원 E등급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된다.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장학금을 받으면 '수혜 학기 × 4개월'간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반납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올해 2학기에 290억원의 사업예산이 배정됐는데 약 9천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직업계고 졸업생 가운데 청년층(만 34세 이하), 일반계고 졸업생 가운데 청년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8월 6일부터 17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하면 된다. 장학금은 10월에 지급한다.

김영근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앞으로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 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 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앙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 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